KBS 🔵 시 청 자 의 견 일 일 보 고 서 [6.1]

│. 상담실적

○ 상담기간: 2023. 5. 31.(수) 06:00 ~ 23:00

ㅇ 상담건수1): 782건

Ⅱ. 주요의견 내용

○ 방송 호평(3명)

-프로그램명: 「통합뉴스룸 ET」

-방송일시 : 2020. 7. 6.~2023. 5. 25. (월-목) 2TV 방송.

살면서 진짜 필요한 경제 관련 정보들을 제공해주어 매일 저녁 시청했다. 하루의 주요 경제 뉴스를 일목요연하게 알 수 있어 굉장히 유익한 프로그램이었는데, 종영 되어 당황스럽다. 오랜 시청자로서 아쉽고 서운하다.

○ 편성 제언(23명)

-프로그램명:「박원숙의 같이 삽시다」

-방송일시: 2023. 5. 30.(화) 2TV (20:30-21:50)

매주 화요일마다 기다렸다가 시청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날도 방송을 시청하기 위해 기다렸는데, 방송이 되지 않아 서운했다. 화요일 저녁이 시청하기에 좋았는데 편성이 변경됐다니 걱정스럽고, 향후에는 결방되지 않길 바란다.

Ⅲ. **청원현황**

- ㅇ 신규청원
 - 4건.
- ㅇ 이슈청원 및 특이사항
 - 없음.

※ 참고: KBS홈페이지->시청자권익센터->시청자청원(http://petitions.kbs.co.kr)

¹⁾ 프로그램 별 인터넷 의견 건수는 집계에서 제외

Ⅳ. 일일 상담내용

1. 상담실적 : 총 782건

○ 형태별 분류

전화	인터넷	우편·FAX	방문	ARS ²⁾	계
453	82	1	_	246	782

○ 채널별 분류

1TV	2TV	라디오	DMB	인터넷	非채널	계
412	221	16	_	_	133	782

○ 내용별 분류

의견제시	단순문의	기타	계
216	566	_	782

○ 분야별 분류

- 진행자 섭외 제언

방송	기술	경영	기타	계
589	3	74	116	782

시청자 의견	문 의
【편 성】 ○「더 라이브」 - 편성 제언 ○「인간극장」 - 결방 제언 ○「박원숙의 같이 삽시다」 - 편성 제언	【방 송】 ○「6시 내고향」 - '꼴뚜기'연락처 문의 45건 ○「KBS 뉴스광장」 - '보도 내용'문의 32건 ○「2TV 생생정보」 - '모둠 생선찜'연락처 문의 24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편성'문의 21건
【보 도】 ○「KBS 뉴스광장」 - 보도 제언 ○「KBS 뉴스특보」 - 방송 제작 제언	○「KBS 뉴스 특보」 - '보도 불만' 21건 【기 술】 ○「난시청」문의 2건 ○「수신기술」문의 1건
○「통합뉴스룸 ET」 - 방송 호평 【라디오】	【경 영】 ○「홈페이지」문의 37건 ○「프로그램 구입」문의 26건 ○「전화교환」문의 8건 ○「수신료」문의 3건
○「KBS 열린토론」	【기 타】

ㅇ 한전 문의사항 포함 116건

²⁾ ARS 항목 상세내용: 제보, 홈페이지문의, 프로그램 구매문의, 출연자 및 출연업체 전화번호 안내

2. 프로그램별 의견

의견	세부내용
[편 성]	
편성 제언	○「더 라이브」(10명) - 2023. 5. 30.(화) 1TV (22:50-23:30) - 매일 저녁 챙겨보는 프로그램인데, 개편을 앞두고 2주간 재정비한다는 소식을 들었다. 1TV에서 2TV로 채널이 변경되는 점이 아쉽고, 2주간 방송을 볼 수 없는 점도 속상하다. 재정비후부터는 결방 없이 방송해주길 바란다. ※의견제시자: 익명 외
결방 제언	 이 「인간극장」(9명) - 2023. 5. 31.(수) 1TV (07:50-08:25) - 항상 「인간극장」을 시청하는 시청자이다. 이날 뉴스특보로 인해 결방이 되어 아쉬웠다. 가급적이면 결방을 자제해주기 바란다. ※의견제시자: 익명 외
편성 제언	○「박원숙의 같이 삽시다」(23명) - 2023. 5. 30.(화) 2TV (20:30-21:50) - 매주 화요일마다 기다렸다가 시청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날도 방송을 시청하기 위해 기다렸는데, 방송이 되지 않아 서운했다. 화요일 저녁이 시청하기에 좋았는데 편성이 변경됐다니 걱정스럽고, 향후에는 결방되지 않길 바란다. ※의견제시자: 익명 외

의견	세부내용
[보도]	
보도 제언	○「KBS 뉴스광장」 - 2023. 5. 31.(수) 1TV (06:00-07:50) - 이날 오전 서울 지역에 경계경보 사이렌이 울렸다. 재난방송 주관방송사인 KBS 뉴스를 시청했는데 앵커가 대피문자를 그대로 읽었을 뿐, 무슨 일인지 파악해 시청자들에게 긴급히 보도해주는 건 없었다. 이후 '北 장거리 로켓 발사 역사는?'과 같은 북한 발사체 역사를 보도하기에 어이없었다. ※의견제시자: k**
방송 제작 제언	 ○「KBS 뉴스특보」'오염수 시찰단 결과 발표'(12명) - 2023. 5. 31.(수) 1TV (10:30-11:00) - 유국희 시찰단장이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일본을 방문해 진행한 현장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그런데 카메라가 유국희 단장의 모습만 잡을 뿐, 정작 유국희 단장이 브리핑 지시봉으로 가리키는 보드판은 보여주지 않아 답답했다. 자료화면 위주로 잡아주기 바란다. ※의견제시자: 익명 외
방송 호평	○ 「통합뉴스룸 ET」(3명) - 2020. 7. 6.~2023. 5. 25. (월-목) 2TV 방송 살면서 진짜 필요한 경제 관련 정보들을 제공해주어 매일 저녁 시청했다. 하루의 주요 경제 뉴스를 일목요연하게 알 수 있어 굉장히 유익한 프로그램이었는데, 종영되어 당황스럽다. 오랜 시청자로서 아쉽고 서운하다. ※의견제시자: 익명 외

의견	세부내용
[라디오]	
	ㅇ「KBS 열린토론」
진행자 섭외 제언	- 2023. 5. 30.(화) 1R (19:20-20:30)
	- 다양한 주제로 토론하는 프로그램이며, 정준희 저널리즘 전문
	가가 진행하고 있다. 그런데 정준희 씨가 너무 오랜 기간 진행
	을 맡고 있는 것 같다. 현 정부에 대해 '꼰대' 같은 발언도 한
	다. 이제는 진행자를 교체할 시기가 되지 않았나 싶다.
	※의견제시자 : 익명